

# 성완중 리스트가 '공안총리' 불렀다

### 리스트 거론 '친박 정치인' 문제·사면 논란 정면돌파 국회 인사청문회도 염두...사회 전반 사정대풍 예고

**인선 배경**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장관이 21일 전직 발탁된 것은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정치개혁을 하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또 국정 안정성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황 후보자는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사정수사를 지휘해왔고, 현 정부 출범 때부터 내각에서 출근 일해왔으며 인사청문회의 관문을 이미 한 차례 통과한 적이 있어 이 모든 것을 충족했다고 평가받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스스로 황 총리 후보자의 발탁 배경에 대해 박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황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법무장관으로 직무를 수행해오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새 한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임 이완구 총리의 '낙마'를 초래한 원인이기도 한 성완중 리스트 정국과 무관치 않다. 정국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성완중 파문'으로 부각된 부정부패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게 '황교안 총리' 발탁 배경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성완중 파문이 터진 뒤 그 해법으로 정치권의 돈거래 관행과 부정부패 사슬을 끊어내는 '정치개혁'을 꾸준히 강조해왔다. 사정 당국수장인 현직 법무장관을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은 검찰수사를 비롯한 고강도 정치개혁 드라이브에 더욱 힘을 실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강력한 정치개혁의 '의지'를 국정 2인자에 대한 '인사'를 통해 드러내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성완중 리스트'에 거론된 친박(친박근혜) 정치인들을 넘어 과거 참여정부 시절 진행된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논란 등 과거의 정치권 유착, 비리 의혹을 날날이 밝혀내고, 사면제도 개선 등 제도적 보완장치까지 충실히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이번 인선에 담겼다고 여론 관계자들은 풀이했다.

특히 오랜 검사시절을 거치며 공안통으로 명성을 날린 황 후보자가 '사정(正正)'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제 완수를 실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황 후보자는 현 정권 출범 초기부터 내각에 일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꿰뚫고 있다는 점은 외부 인사의 발탁과 비교한다면 국정의 안정성, 그리고 총리로서 조기 국정 장악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깜짝 발탁'을 통한 큰 변화보다는 현직 각료 기용을 통한 국정의 연속성에 무게를 뒀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총리 인선에서 가장 신경썼던 대목이 국회 인준이었다는 점에서 황 후보자가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는 현직 각료라는 점도 박 대통령의 인선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황 후보자는 박 대통령의 현 정부 조각 당시 법무장관 후보로 내정됐고, 당시 장관 후보자의

이따른 낙마 사태 속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청문회 문턱을 넘어선 인사 가운데 한 명이다.

한편, 성균관대 출신인 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박근혜정부의 초대 총리부터 3대 총리까지 모조리 성균관대 출신이 차지하는 이색 기록이 수립돼 박 대통령의 '성균관대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정부 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30년간 검찰에서 일하며 '공안통'으로 명성을 쌓았다.

때문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 여러 차례 승진에서 빠지는 아픔을 맛봤다.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거치고도 곧바로 승진하지 못하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 검사장에 승진했다. 이어 2011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조직을 떠난 그는 2년 만인 2013년 박근혜정부 초대 법무장관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총리 후보자 지명에는 지난 2년3개월간 안정적으로 법무행정을 총괄하며 통합진보당 해산을 끌어내는 등 성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여권으로부터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해 무난하게 장관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황 후보자는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대검찰청 공안3과장·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역임하는 등 공안 쪽에서 특기를 쌓았다.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낸 정도로 공안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있던 2005년에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가정보원·안전기획부 도청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당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속죄하는 초강수를 둔 반면 파생사건에 해당하는 '안기부 X파일' 의혹 수사에서는 정관계 로비

## 'X파일 수사' 삼성 관련자 모두 무혐의 처리 법무장관 재직시 통합진보당 해산 이끌어

### 황교안은 누구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30년간 검찰에서 일하며 '공안통'으로 명성을 쌓았다.

때문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 여러 차례 승진에서 빠지는 아픔을 맛봤다.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거치고도 곧바로 승진하지 못하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8년 검사장에 승진했다. 이어 2011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조직을 떠난 그는 2년 만인 2013년 박근혜정부 초대 법무장관으로 공직에 복귀했다.

총리 후보자 지명에는 지난 2년3개월간 안정적으로 법무행정을 총괄하며 통합진보당 해산을 끌어내는 등 성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여권으로부터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해 무난하게 장관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황 후보자는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다. 대검찰청 공안3과장·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역임하는 등 공안 쪽에서 특기를 쌓았다.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낸 정도로 공안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있던 2005년에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국가정보원·안전기획부 도청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당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구속·속죄하는 초강수를 둔 반면 파생사건에 해당하는 '안기부 X파일' 의혹 수사에서는 정관계 로비

### 새 국무총리 후보자 황교안 프로필

- 출생 1957. 4.15(서울)
- 학력 경기고,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 석사
- 주요경력
  - 1983년 사법연수원 수료(13기)
  - 1990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1992년 서울지검 검사
  - 1999년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 2000년 대검찰청 공안3과장, 同공안1과장
  - 2003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
  - 2004년 서울고검 검사
  -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 2007년 서울고검 검사
  - 2009년 창원지검장, 대구고검장
  - 2011년 부산고검장
  - 2011~2013년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 2013~2015년 법무부 장관

의혹을 받는 삼성그룹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면서 진실 규명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일부의 비판도 받았다. 교회 전도사를 지낼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부인 최지영 씨와 1남 1녀.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수임료 16억 전관예우·두드리기 軍면제 등 쟁점

**청문회 통과할까**

박근혜 대통령의 황교안 총리 후보자 지명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치열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4대 개혁 추진과 경제활성화, 조속한 국정 정상화를 위해 황 후보자의 조속한 인준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야당은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시절 각종 논란 등을 거론하며 TF팀을 구성하는 등 낙마에 총력을 전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 쟁점은 황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시절 여야가 극심하게 대립했던 정치적 사건 처리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듯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 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황 후보자에 대해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 대변인은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

국정원 댓글·간첩 증거조작 등  
정치적 사건 처리 과정도 논란  
새정치 TF팀 구성 "낙마시킬 것"

과 '성완중 리스트' 수사도 언급하며 황 후보자가 총리로 부적격이라는 입장과 함께 인사청문 태스크포스도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지난해 2월과 2013년 11월 2차례나 황 후보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은 황 후보자의 '공안통' 성향과 맞물려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자는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 혁명을 '혼란'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고검장 퇴임 후 법무부 장관 취임 전 로펌에서 고액 연봉을 받은 전관예우 논란도 다시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그해 9월부터 현재까지 1년 5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가 5개월간 16억여원의 수임을 올린 것이 문제가 돼 사퇴한 데 비해서 적지만 야당은 다시 쟁점화시킬 태세다.

황 후보자가 1980년 두드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으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 사실이나 안기부 'X 파일' 사건의 편과 수사 논란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에 대해 호평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의 강력한 엄호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부패척결과 청렴사회 구현을 잘 할 사람"이라고 말했고, 각종 논평을 통해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만큼 국무총리에 적합한 인물"이며 "국가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 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문의처 노안리식/Karma nlay를 이용한 시술/다초점 인공 수정체 /레스토렌즈/레이드를 니버비전 인레이

부작용: 수술 후 초기 아찔 및 빛반, 노안리식 수술 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심의일 제 140611-중-59153호

시열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일 제150204-중-68156호

**아이소망**

시열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사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열병원.com ☎ (062)368-1700